

證道歌字와 『東國李相國集』

Zengdoga Type(證道歌字) and Donggukyisanggukjip(東國李相國集)

南 權 熙(Nam, Kwon-Heui)*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6. 13世紀 前期 高麗活字에 대한 논의 |
| 2. 高麗 金屬活字 實物과 관련 기록 | 7. 중국학자 潘吉星의 한국 금속활자 논의에 대한 검토 |
| 3.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성립과 간행기록 | 8. 맺음말 |
| 4. 蒙古의 침략과 시대적 배경 | <참고문헌> |
| 5. 「東國李相國集」의 版本과 「證道歌」와의 비교 | |

< 초 록 >

이 연구는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찍었던 고려활자와 관련된 계속 연구로 이미 알려져 있는 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된 『東國李相國集』 全集의 版本도 그 底本은 證道歌字로 찍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東國李相國集』 全集을 찍는데 사용된 활자의 글씨와 證道歌字가 같다면 기존에 추정되었던 여러 가지 사실중 「古今詳定禮文」은 새로운 활자를 주조하여 찍은 것이 아니며 소위 「證道歌」, 「詳定禮文」, 「李相國集」이 10여년 이내에 같은 활자로 찍었고 활자 역시 開城에서 주조되어 江華島 遷都 때 함께 가지고 가서 책의 출판에 사용하다가 1270년경 다시 還都할 때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많은 양의 실물활자들이 나타남에 따라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북'자나 북한산의 '진'자 등 고려활자에 대하여 중국학자들이 주장한 몇 가지 측면의 부정적 주장을 불식시키는 자료로 이 활자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要語: 금속활자, 증도가자, 남명천화상송증도가, 고급상정예문, 동국이상국집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kwhe@hanmail.net)

접수일: 2011년 5월 31일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is one of the series of researches about Zengdoga type(證道歌字) used for printing *Nammyungcheonhwasangsongzengdoga*(南明泉和尚頌證道歌) in the Goryeo dynasty. In this study, we tried to reveal that Zengdoga type(證道歌字) were also used for printing the original base copy of *Donggukyisanggukjip*(東國李相國集) published in Bunsadaejangdogam(分司大藏都監).

In this study, some evidences and background information are presented as follows: If the types used for printing *Donggukyisanggukjip*(東國李相國集) and *Zengdoga*(證道歌) are the same one, it is not true that *Gogumsangjungyemoon*(古今詳定禮文) was published by another new metal types. Consequently *Zengdoga*(證道歌), *Sangjungyemoon*(詳定禮文) and *Yisanggukjip*(李相國集) were published by the same metal type, that is, Zengdoga type(證道歌字) in 10 years. At that times, Zengdoga types(證道歌字) were made in Gaeseong(開城), later moved to Ganghwa island(江華島), and returned to Gaeseong(開城) in 1270.

Since a lot of actual Zengdoga types(證道歌字) were recently open to the public, they could be used to refute the negative argument of Chinese scholars against 'Bok(山/復)' type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Jeon(力顯)' type held in North Korea.

Key words: *Zengdoga*(證道歌), Zengdoga type(證道歌字), Metal type(금속활자), *Gogumsangjungyemoon*(古今詳定禮文), *Donggukyisanggukjip*(東國李相國集), *Nammyungcheonhwasangsongzengdoga*(南明泉和尚頌證道歌)

1. 머리말

이 연구는 필자가 2010년 9월에 발표한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찍었던 고려 활자와 관련된 계속 연구로 이미 알려져 있는 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된 「東國李相國集」全集의 版本도 그 底本은 證道歌字로 찍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다.

그 동안 새로 발견된 고려 금속활자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기초적 검토는 이미 발표되었으며 2010년 『書誌學報』에 수록된 필자의 「證道歌字의 발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활자의 형태적 특징, 서체 및 탄소연대측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필자는 2004년부터 이 활자로 찍은 印本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그동안 활자본의 飜刻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東國李相國集」을 다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수년 전에 번각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윤병태 교수님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각 연구영역에서 다루어졌던 「東國李相國集」은 주로 역사학, 문학, 불교학 등에서 저자인 李奎報에 대한 傳記의 내용과 함께 기본자료로서 많이 이용되고 연구되어 왔다. 또 書誌의인 측면에서도 刊行과 版本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의 판본들 중에는 補刻板의 混入이 많고 그 계층도 다양하여 흩어진 전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는 「東國李相國集」의 여러 판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高麗 版本 중 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된 판본에 대하여 기본적인 형태 비교를 통한 분석에서 활자본을 교정, 번각한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고 이 때 底本의 활자가 證道歌를 찍었던 것과 같음을 밝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東國李相國集」全集의 활자의 글씨와 證道歌字가 같다면 기존에 추정되었던 여러 가지 사실 중 「古今詳定禮文」은 새로운 활자를 주조하여 찍은 것이 아니며 소위 「證道歌」, 「詳定禮文」, 「李相國集」이 10여년 이내에 같은 활자로 찍었으며 활자 역시 開城에서 주조되어 江華島 遷都 때 함께 가지고 갔으며

1270년경 다시 遷都할 때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많은 양의 실물활자들이 나타남에 의하여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복’자나 북한의 ‘진’자 등 고려활자에 대하여 중국학자들이 주장한 몇 가지 측면의 부정적 주장을 불식시키는 자료로 이 활자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高麗 金屬活字 實物과 관련 기록

2.1 高麗 金屬活字 ‘複’字와 ‘旃’字

국립중앙박물관에는 開城附近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複’ 활자가 한 점이 있으며 이 글자는 僻字로 잘 쓰이지 않으며 뜻은 ‘산 덮을 복’이다. 외형에서 가로세로가 1.2-0.9cm이며 위가 좁고 아래쪽이 약간 넓고 높이는 약 7mm 정도이다. 활자의 글자 뒷면에는 둥근 홈이 파여 있다.

이 금속활자는 1913년 10월 7일 덕수궁 박물관에서 일본인 赤星佐七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그는 조선총독부 시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개인 골동품상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 북한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진 ‘旃’字는 1958년 開城 滿月臺 神鳳門 터에서 서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서 북한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것으로 가로세로 각 약 1.0cm이며 활자의 주성분은 동, 주석, 연, 규소, 철, 알루미늄 등이다.¹⁾

이러한 두 활자는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복’자의 경우 네 모서리에 남아 있는 주조 형태 등에서 조선시대의 분리된 父字를 이용한 鑄物沙鑄造法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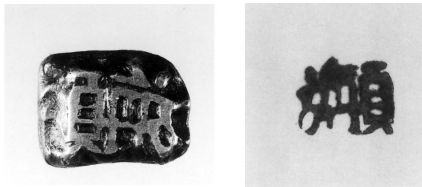
이 두 활자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글자체에 의하여 충선왕 때인 14세기 초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말기까지 유행한 송설체 계열을 고려하여 고려 후기에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²⁾으로 추정하였다.

1) 조선유적유물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28.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활자가 開城에서 출토된 것이고 형태적으로는 ‘복’자와 같은 것이 수량의 반을 차지한다든가, 그 사용의 시기가 13세기 초로 추정되며, 동시에 발견된 네다리형의 구양순체 미사용 활자가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복’자의 경우 주조와 사용 시기는 13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고려 ‘復’자



<그림 2> 고려 ‘顛’자 ‘顛’자의 印面

2.2 鑄字 管理 機關

2.2.1 書籍鋪

高麗 肅宗 때 國子監 내에 설치하였던 책의 간행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설치는 肅宗 5년(1101) 3월이었다. 당시 祝文과 經籍을 맡아보던 秘書省에 보관되어 있던 冊板이 쌓이고 훼손된 것이 많아지자, 서적포를 설치하여 모든 책판을

2) 千惠鳳,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285.

이곳에 두고 인쇄, 보급하게 하였다는 『高麗史』의 기록이 있다. 이때의 서책 간행은 秘書省의 관장아래 이루어졌고 官學을 진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鄭道傳의 『三峰集』에도 서적포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吾東方 書籍罕少 學者皆以 讀書不廣爲恨 予亦病此久矣 切欲置書籍鋪鑄字 凡經史·子書·諸家詩文 以至醫方·兵律 無不印出 俾有志於學者 皆得讀書 以免失時之歎³⁾

즉, 우리나라에는 서적이 적어 학자들이 안타깝게 여기던 중 정도전이 활동하던 고려후기에 이르러 서적포를 설치하여 활자로써 經史子集의 책과 의학서, 병서, 법학서 등을 모두 찍어내어 학자들의 독서와 연구를 널리 권장한다는 것으로 이로 미루어 서적포도 서적점과 더불어 고려시대의 鑄字 관리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목판으로 책을 새기고 간행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활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제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2 書籍店

高麗 文宗 때 설치한 서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기관으로 소속관원으로 錄事 2명이 丙科의 權務를 담당하였고 吏屬으로는 記事 2명, 記官 2명, 書者 2명을 두었다.

그 후 忠宣王 즉위년에 왕이 文翰署와 史館署를 병합하여 藝文春秋館이라고 하고 이로 말미암아 右文館·進賢館·書籍店도 翰林院籍과 합쳐졌다. 그러나 뒤에 다시 설치되었고, 그 시기는 恭愍王 11년(1362)에 右文館과 進賢館이 藝文館으로부터 독립된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 기관들과 함께 병합되었던 書籍店 또한 이 시기에 다시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恭讓王 4년(1392)의 기사에서도 鑄字와 書籍의 인쇄를 관장시키고 승과 쯤이

3) 『三峯集』卷1. 置書籍鋪詩並序.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그 이전에도 단순히 인쇄된書籍의 관리뿐만 아니라 鑄字에 관한 일과 서적의 인쇄까지도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3 書籍院

「高麗史」書籍店條 아래와 「高麗史節要」에는 “恭讓王四年 置書籍院 掌鑄字 印書籍 有令丞”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恭讓王 4년(1392)에 書籍院을 설치하고 鑄字와 서적을 인출하게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승과丞을 두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서적점을 대신하여 書籍院이 高麗말에 鑄字와 印書業務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비슷한 점과 조직과 역할이 같다는 점에서 명칭만 변경되었거나 다른 異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서적원에서 서책을 찍은 기록으로는 조선 개국과 더불어 1395년에 白州知事 徐贊이 만든 木活字로 「大明律」의 直解도 간행되었고 2년 뒤 1397년에도 開國原從功臣錄券을 목활자로 찍었던 간행활동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나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2.3 金屬活字 印本

2.3.1 南明泉和尚頌證道歌

「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高宗 26년(1239)에 鑄字로 찍었던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翻刻하여 인출한 책으로서 1책이 목판본으로서 현재 보물 제758호로 지정된 것을 포함하여 4종이 알려져 있다. 그밖에 鑄字本 翻刻 외에 다른 版本도 있고 註釋者가 다른 판본과 조선시대의 언해본 등이 있다.

翻刻本の 底本이 되었을 鑄字本은 翻刻本の 권말 기록에 의하여 1232년 몽고 침입에 따른 江華島 遷都 이전에 開城에서 활자로 찍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고려 금속활자의 기원을 논의할 때 항상 이 책의 발문 기록으로

근거하여 넓게는 13세기 초 이전이며 좁게는 1230년대 이전의 어느 시기에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다는 것이다. 그 실증적 자료로 들고 있는 이 책은 永嘉大師가 저술한 「證道歌」에 南明泉禪師가 계송한 것으로,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강화로 천도한 高宗 26년(1239)에 武人政府의 제 1인자인 中書令 崔怡가 重彫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통하여 이미 몽고 침입 이전에 수도인 개성에서 금속활자로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찍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즉 구체적인 시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폭넓게 잡아 이미 1232년 이전에 개경에서 발달된 활자 주조와 인쇄술이 있었겠지만 시기를 정하는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천도 이전의 시기로 잠정적 제시를 하는 것이다.

2.3.2 詳定禮文

13세기의 금속활자 인본으로 가장 빠른 시기의 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록에 근거하여 오래된 금속활자본임을 짐작케 하는 「詳定禮文」을 들고 있다. 이 책은 高麗 毅宗의 명령으로 당시 平章事로 있던 崔允儀 등이 편찬한 책⁴⁾으로 모두 50권으로 되어 있는 禮書인데, 이 책을 주자로 찍었다는 것은 이규보의 문집인 「東國李相國後集」에 晉陽公 崔怡를 대신하여 지은 ‘新印詳定禮文跋尾’라는 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그 핵심 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代 晉陽公行

… 仁廟朝 始勅 平章事崔允儀 等十七臣 … 成書五十卷 命之曰 詳定禮文 流行於世 … 予先公迺令補緝 遂成二本 一付禮官 一藏于家 … 果於遷都之際 禮官遑遽 未得賚來 … 有家藏一本 得存焉 予然後 益諳先志 且幸其不失 遂用鑄字 印成二十八本 分付諸司藏之 …⁵⁾

와 같으며, 崔允儀 등이 편찬한 詳定禮文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책장이 탈락되고 글자가 缺落되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崔怡의 선친인 崔忠獻이 이를

4) 金塘澤, “詳定古今禮文의 편찬시기와 그 의도,” 『湖南文化研究』, 21, 1-12.

5) 『東國李相國後集』, 卷11. 新印詳定禮文跋尾 代晉陽公行.

補輯하게 하여 2부를 완성한 다음 한 부는 禮官, 다른 한 부는 자기의 집에 두었는데, 몽고군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할 때 禮館의 것은 가져오지 못하였고, 崔怡의 家藏本만 남게 됨에 이를 다행으로 여기다가 마침내 鑄字로 28부를 찍어 여러 관사에 나누어 간직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자인쇄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기록에는 인출한 동기와 간행 부수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간행연대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책을 대신 저술토록 한 崔怡가 晉陽侯에 책봉된 해가 高宗 21년(1234)이고 이규보가 죽고 문집을 간행한 해가 同王 28年(1241)이므로 그 사이에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대로라면 50권이나 되는 거질의 책을 28부나 인출하였다는 것은 활자의 수량과 간행의 소요시일이 상당하였을 것이며 주조와 조판의 기술 또한 숙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천도 이후에는 난을 수습하는 등으로 활자를 주조하고 조판을 고안하는 일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을 것이나 이미 천도 이전에 주자인쇄의 경험으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정하고 있다. 또 필자의 以前 연구나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證道歌」를 찍었던 소위 ‘證道歌字’와 구분하여 ‘詳定禮文字’라는 별도의 활자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술 할 여러 형태적 검토에서 「證道歌」와 「東國李相國全集」의 서체와 조판법 등으로 같은 활자라는 점을 밝히고 따라서 시기적으로 10년 이내에 찍힌 두 印本의 중간에 해당하는 「古今詳定禮文」도 당연히 같은 활자에 의해 찍은 것으로 추론하는 것도 본 연구의 한 성과인 셈이다.

3.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성립과 간행 기록

3.1 간행 기록

이 책은 法泉이 千頃山에 있을 때 지어졌으며 宋의 神宗 熙寧 9년(1076) 7월에

浙江省의 括蒼(지금의 浙江省 麗水)에서 처음으로 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卷末에는 祝況의 序가 수록되어 있고 1077년 7월에는 卷首에 吳庸의 序를 더하여 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高麗에 옮겨와 유통된 것은 宋나라의 初刊本이나 그것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다.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현존 목판본의 간행 시기는 몽고의 침입을 받고 高麗 高宗 19年(1232)에 수도를 임시 江華로 옮긴지 8년째가 되는 同王 26年 乙亥年(1239) 9월에 江華 武人政府의 제일인자인 中書令 崔怡가 쓴 글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책의 跋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夫 南明證道歌 實禪門之樞要也 故後學參禪之流 莫不由斯 而入升堂 觀奧矣 然則 其可閉塞而 不傳通乎 於是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晉陽公 崔怡 謹誌

와 같아서, 이 책의 간행 동기는 선문의 중요한 책인 『南明泉和尚頌證道歌』가 후학들이 참선을 하는데 의거하는 중요한 책이지만 그것이 흩어지고 없어져 전하지 않으므로 기술자를 모아 활자본을 다시 목판본으로 번각하였다고 한다. 즉 飜刻本의 간행 시기는 몽고군이 쳐들어와 江華島로 천도한 후 수 년이 경과한 후 1239년 9월에 重彫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 底本이 되는 金屬活字印本은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기 이전 開京에서 이미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저자

證道歌의 저자는 唐代의 玄覺으로 字는 道明이며 溫州 永嘉(지금의 浙江省 永嘉)으로 韻文의 형식으로 禪宗의 법문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 證道歌에 대하여 후에 南明山(지금의 浙江省 新昌境內)의 法泉 스님이 頌을 쓴 책이 바로 이것으로 ‘千頃山 沙門 法泉 頌’이라는 저자 표시가 책의

卷首 序文과 卷首題에 이어 한 行을 이루고 있다.

證道歌를 註釋한 法泉은 宋代 胡廣 德安府 隨州縣 출신으로 俗姓은 時氏였으며 龍居山 智門院 信玘禪師에 出家하였고 法號를 佛慧라 하였다. 法嗣는 筠州 雲居의 大愚 曉舜禪師에게 받고 靑原의 12世가 되었으며 후에 大明, 千頃, 靈巖, 南明 및 金陵의 蔣山 法泉院으로 옮겨 다니며 정진하다가 만년에 황제의 勅命으로 大相國의 智海禪寺에 주석하면서 宗師가 되었다.

3.3 내용과 형식

證道歌는 唐나라 永嘉의 玄覺禪師(643-713)가 禪宗의 第6祖 慧能을 만난 후 하룻밤 사이에 얻은 큰 깨달음을 249句의 古詩體로 읊은 것으로 禪宗의 법문을 운문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이 證道歌의 완전한 서명은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이며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註釋書가 宋代 이후에 유통되었고 그 중 法泉의 繼頌은 중요한 주석서로 평가되어 왔다.

그 내용은 부처의 영원불변한 진리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는 精髓를 노래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佛性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參禪修行을 하면 부처의 본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證道歌의 형식은 霽月 通光⁶⁾에 의하면 문학 형식 중 樂府의 장편 歌行體를 말하는 것이며 明代 徐師曾의 「詩體明辯」에서 ‘歌’는 ‘감정을 표출하여 가사를 길게 뽑아 이것저것 일정한 것 없이 뒤섞어 놓은 것’이라 설명하였다. 현각이 살았던 盛唐時期에는 近體 律詩가 가장 성행했으므로 證道歌 역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도가 형식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첫머리의 ‘君不見’ 구절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전체가 267句 134聯 또는 266句 133聯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글자는 반문강조형 詩句에서 사용될 뿐이며 구절을 형성하기

6) 제월통광 현토역주, 「중도가 언기주」 (서울: 불광출판사, 2008), 8-13.

어렵기 때문에 266句로 여겨진다.

또 형식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3·3의 6言句는 시작의 첫 句節인 起句에만 있고 文體는 대체적으로 對偶의 형식으로 앞에는 韻字가 없고 뒤 句節에는 韻字가 나타난다. 또한 證道歌는 古體詩의 성격에 따라 한 句節씩 건너 韻字를 쓰고 또 바꾸어 쓸 수도 있는 隔句換韻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⁷⁾

한편 저자와 관련 자료 중 「禪宗永嘉集」은 唐 永嘉玄覺(665-713)의 「永嘉集」에 대해 晉 淨源의 科와 行靖의 註를 모은 것으로 修禪의 要義와 歷程을 서술하여 도에 들어가는 요결을 十門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보면, 고려에서는 「선종영가집」보다는 「證道歌」가 주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證道歌」는 고려말에도 유행하며 보우나 나옹 등 14세기의 선승들이 「證道歌」를 기본으로 歌頌을 지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고려말 「證道歌」의 형식은 禪師들이 가송을 찬술할 때의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태고의 <太古菴歌>는 「證道歌」를 본떠 지었다고 하며, 이색은 나옹의 三歌(翫珠歌·百衲歌·枯髑歌)도 「證道歌」의 句法을 본떠서 지은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李穡이나 權近 등 여말 성리학자들도 「證道歌」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고려말 「證道歌」가 유행한 것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한편 永嘉 玄覺과 관련된 저술 중에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임히고 간행된 것으로 「선종영가집」이 있으며 李邦直의 後誌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기록이다. 고려말 나옹의 문도들에 의해 간행된 이 「선종영가집」은 조선초 自超의 문도인 得通己和(1376-1433)가 說誼를 더하여 「禪宗永歌集說誼」를 찬술했고, 기화의 「선종영가집설의」에 대한 언해본이 1463년(세조9) 세조의 명으로 「선종영가집언해」가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고 당시 세조가 직접 구결을 정하였으며 효령대군을 비롯한 前檜巖寺住持 曉雲을 포함한 여러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고려 후기에 들어 나옹 해근이 중국에서 유학할 때 인도에서 티벳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指空과 교류하였고 指空은 泰定帝의 御香使로 파견되어 1326년 개경에 이르렀다.

7) 제월통광 현토역주(2008), 12.

이 때 많은 신도들이 그의 주변에 운집하였고 그중 玉田 達蘊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指空에게 계를 받거나 출가하게 되었다.

달은은 1328년 지공을 따라 원에서 각지를 다니며 1353년까지 건문을 넓혔다. 달은의 俗姓은 曹氏이며 공민왕의 元從功臣으로서 공을 세워 재상을 역임한 사람의 동생으로 曹益淸의 동생으로 추정되고 있다.⁸⁾

달은은 1355년 이후 귀국하였으며 李穡, 『牧隱文藁』 卷3 <書證道歌後>에 의하면 이때 가지고 온 永歌玄覺의 『證道歌』를 前贊成事 禹禪가 간행하게 되자 달은은 이색에게 그에 대한 後序를 부탁할 때 이미 귀국한지 20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달은이 가지고 온 『證道歌』는 1316年(元 延祐 3) 趙孟頫가 글씨를 쓰고 그에 대해 危素가 발문을 썼다고 한다. 한국에 전하는 조맹부가 쓴 『證道歌』의 권말에는 “延祐丙辰夏 吳興趙孟頫 爲龍光大司徒筠幹禪師書”라는 발문이 있다. 1355년(元 至正 15) 조맹부의 아들인 待制 趙仲穆이 달은의 松月幹에서 조맹부의 『證道歌』를 보고는 그 뒤에 題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 전하는 조맹부가 쓴 『證道歌』는 달은이 가지고 온 것을 우제가 1386년경 복각하고 이것을 다시 중각한 판본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선시대 송설체가 유행하면서 달은 전래본 역시 여러 차례 중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3.4 飜刻本의 특징

이 鑄字版 飜刻本은 총 44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11명의 각수가 나누어 새겼음을 판심 하단에 표시하고 있다. 판각 후 세월이 흘러서 글자 획에 나뭇결이 생기고 어떤 것은 글자 획이 끊기거나 일부가 없어진 것도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중앙관아에서 飜刻하였기 때문에 새긴 솜씨가 정교한 편으로 鑄字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8) 姜好鮮, “高麗末 懶翁慧勘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2011), 60.

9) 姜好鮮(2011), 60-61.

그 두드러진 특징으로 첫째,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비교적 가지런한 점에서 우선 鑄字의 특징이 인지되며, 둘째, 본문의 行列이 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 빼뺏어졌으며, 셋째, 책장마다 한 글자가 유달리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자주 나타나며, 넷째, 윗 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 글자의 위 획이 서로 닿거나 엇물린 것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고려 금속활자 인쇄에 관한 초기 자료의 부족한 실정에서 이 鑄字版 翻刻本이 高麗 中央官署의 주자 인쇄시기와 성격을 究明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존 자료 중 가장 앞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존 자료로 삼성출판박물관(보물758호)과 개인소장자(안동,¹⁰ 대구) 및 모사찰의 스님이 개인 소장한 것이 있으며 4종 가운데 스님 소장본이 가장 빠른 시기의 인출본이며 高麗時代의 口訣도 확인된다. 최근에 발견된 대구 개인소장본은 한글 구결, 한자 약체구결 등이 기록된 것으로 삼성출판박물관본과 판의 마모나 글자의 剝缺 등이 같고 인출의 시기는 판각 후 1-2세기 이상 경과된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판본에 나타난 글자의 특징은 같은 글자의 異體字가 일부 있고 ‘明’자 등 古字가 쓰이거나 획의 시작과 끝의 처리중 빠침이나 올림의 특징이 보인다. 또 11명의 각수가 새긴 까닭에 板面에 따라 匡廓의 크기도 달라지고 약간의 서체상의 차이가 있으며 글자의 굵기나 크기도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4. 蒙古의 침략과 시대적 배경

1206년 징기스칸이 건국한 몽고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였으며 인접한 高麗와는 高宗 6년(1219)에 이미 형제의 맹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몽고의 일방적인 요구와 과도한 공물 징발에 따른 고려의 불만이 누적되어 1225년 결국 몽고의 사신 著古與가 고려에서 咸新鎭(義州)을 거쳐 몽고로

10) 이 책은 박동섭씨 舊藏本이었으나 1980년대에 분실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변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져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를 빌미로 본격적인 몽고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몽고의 침입은 크게는 6차에 걸쳐 30여년간 계속되었으며 그 중 1차 침입은 高宗 17년(1230)에 몽고의 窩闊台(太宗)가 撒禮搭에게 별군을 주어 金을 정벌하게 하고 1231년 8월에 고려를 침공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투는 고려군의 부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역부족하여 연말 경에는 개경이 포위되어 고려 조정에서는 화의를 교섭하여 1232년 1월에 살레답이 요동으로 철수하도록 하였으나 대신 達魯花赤 72명과 개경에는 都르을 파견시켜 국정을 간섭하였다.

이러한 몽고의 위협에 고려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를 江華島로 옮기는 논의를 계속하여 宰樞會議 등에서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1232년 6월 16일 崔瑀는 독단적으로 遷都를 결정하였다. 이어 바로 강도 궁궐의 造營이 시작되어 왕은 7월 7일 강화현의 객관에 임시로 거처하게 되었고 高宗 22년까지 본격적인 궁전과 관아건물의 건축 사업이 진행되었다.

고려의 遷都 등 몽고에 대한 대항 정책은 몽고를 자극하였으며 北界와 西京에서 達魯花赤의 살해나 위협이 발생하자 撒禮搭에 의한 제2차의 침공이 1232년 9월에 시작되었다. 고려 정부에 대한 질책과 遷都를 촉구하고 공격을 계속하여 경상도 내륙까지 피해를 입었고 符仁寺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기도 했지만 침공한 살레답 역시 12월 16일 處仁城(龍仁)에서 전사하여 몽고군은 철수하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침입은 高宗 22년(1235)에서 26년(1239)까지 5년간의 긴 전쟁으로 唐古가 고려의 江都政府와 교섭 없이 전국토를 유린한 까닭에 정부는 전쟁의 장기화와 본토의 큰 피해를 우려하여 高宗 25년(1238) 12월에 장군 金寶鼎과 御史 宋彥琦를 파견하여 철군을 호소하고 몽고는 1239년 4월에 詔使를 보내 국왕의 親朝를 요구하면서 철군 요청에 응해주었다. 그러나 遷都와 親朝가 포함 된 여러 요구 사항은 왕 대신 친족을 보내는 방편 등으로 우여곡절을 거쳐 마무리 되었다.

그 이후 몽고의 태종이 죽고 황위계승문제 등의 내부사정으로 두 나라의 관계

는 전쟁을 벗어나 8년간의 소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46년 몽고의 定宗이 즉위하고 1247년에 還都와 國王親朝의 요구를 다시 들어 7월에 阿母侃을 필두로 다시 4차의 침입을 하였으나 1248년 몽고의 定宗이 갑자기 죽어 몽고군도 철수 하였으므로 고려가 입은 피해는 크지 않았다.

몽고는 여러 차례 같은 요구를 거듭한 끝에 고종 40년(1253) 여름에 也窟에 의한 제5차의 침입을 하여 1254년 1월에 철수하고 바로 그 해 7월에 역시 같은 還都와 親朝를 빌미로 車羅大가 인솔하는 몽고군이 제6차의 침입을 감행하여 이후 1259년까지 계속되었다.

고려 조정도 계속되는 전란에서 국면 전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開京還都와 太子의 入朝를 전제한 몽고군의 철수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257년 12월 앞의 조건 대신에 왕자 安慶公을 파견하는 데 그침으로 큰 진전을 얻지 못하고 1258년 6월에 다시 몽고의 침략이 계속되었지만 몽고 역시 큰 이득을 보지 못한 채 和議가 계속되고 崔氏政權도 무너졌으며 드디어 1259년 4월 태자 腆을 몽고에 보내게 되었다. 즉 武人政權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오랜 江都 생활의 경제적 압박 등으로 몽고와의 화의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시 江都에 도착한 몽고의 使者가 江都 内外城의 파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1259년 6월 高宗이 죽고 1260년 3월 몽고에 갔던 태자가 돌아와 元宗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元에 대한 고려 정부 내의 반감은 여전하여 元宗 9년(1268)까지 出陸還都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抗蒙政策과 金俊, 林衍 등의 내부적인 갈등 표출로 元宗을 폐하였다가 원의 지원으로 원종은 복위할 수 있었다. 이어 원종은 1269년 元으로부터 귀국도중에 還都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林惟茂 등이 거절하였지만 다른 세력의 힘을 빌어 1270년 5월에 임유무를 제거함으로써 開城還都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전쟁과 武人統治의 과정에서 『東國李相國集』이 처음 간행되던 시기는 1241년으로 江都로 옮긴지 약 10년이 되고 몽고군이 3차 침입 후 철수한

약 8년간의 소강상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즉 遷都할 즈음부터 遷都할 때까지 40년 동안에 「證道歌」를 활자로 찍었고 그 翻刻本이 江都에서 간행되었고, 江都에서는 「古今詳定禮文」을 활자로 찍어 주요기관에 비치시켰으며 또 「東國李相國集」도 같은 활자로 찍었다가 遷都할 때 그때 사용한 활자들을 다시 開城으로 옮겨 온 것이다.

그 과정을 표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蒙古의 침략과 시대적 배경

연도	사건	문헌	목적	분량	장소	비고
1230						
1231	몽고1차 침입	「證道歌」 鈔印			개성	
1232	1월, 몽고병 철수 6월, 장외도 안도 9월, 몽고2차 침입					활자이동
1234						<선명연구> "개성에서의 기술과 지식으로 장외도에서 쉽게 주조" "適用活字"
1235	몽고의 3차 침입	「古今詳定禮文」 4권	✓책 1부 유 ✓권서의 소장 수요	多	강화도	
1239	4월, 몽고병 철수	「證道歌」 翻刻	✓책 1부 유 ✓다량배포, 오래 보존	小	강화도	종도기자의 번각
1240		東國李相國集	✓건금, 신속출판 (오류발생)	多	강화도	
1241		多數				
1247	몽고4차 침입					南明泉頌證道歌事實 3卷
1248	3월, 몽고병 철수					
1249	계경 황태와					
1250						
1251		東國李相國集				
1253	7월, 몽고 5차 침입	翻刻 (남해본서대장도감)				활자이동, 신활자주조
1270	개경환도					

5. 「東國李相國集」의 版本과 「證道歌」와의 비교

5.1 「東國李相國集」의 간행과 초기 판본

이 책의 활자본 간행에 대하여 처음 언급한 분은 尹炳泰 교수님으로 1996년

6월에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간행된 『印刷出版文化의 起源과 發達에 관한 研究 論文集』에서 “高麗·朝鮮의 活字印刷 出版文化 研究”라는 발표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은 『詳定禮文』의 발미를 쓴 李奎報의 문집중 이 책을 활자로 찍은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활자본을 뒤엎어서 간행한 것으로 믿어지는 책이 부산의 개인소장가에게 소장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현재 알려져 있는 『東國李相國集』은 李奎報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에 의하여 우선 『前集』 41권만 편찬되었고 이 『前集』에서 누락된 것을 나중에 『後集』 12권으로 편찬하여 수록하였다. 李奎報가 죽은 것은 高宗 28년(1241) 辛丑 9월 2일인데, 그가 앓아눕기 시작한 것은 그 해 7월이다. 『東國李相國集』의 앞머리에 있는 ‘東國李相國年譜’의 끝에,

… 秋七月寢疾 晉陽公聞之 遺名醫等 問診不絕 乃取 公平生所著 前後文集 凡五十三卷 募工雕印 其督役甚急 欲及 公之眼見 以慰其情也 然以 役巨 未能告畢 越九月初二日忽離常寢¹¹⁾

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의하면 7월에 李奎報가 앓아눕자, 晉陽公 崔怡가 名醫들을 계속 보내 진찰케 하고, 그가 평생 동안 저술한 前·後 文集 53권을 기술자를 모아 새기도록 하는데, 매우 급하게 일을 독촉하였다. 그것은 적은 책을 李奎報에게 보여 위로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규모가 큰 일이었으므로 끝내지를 못한 9월 3일에 李奎報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러한 내용은 그에게 내린 ‘誄書’나 李需가 지은 “墓誌銘”에도 포함되어 있다.¹²⁾

이 기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처음부터 문집 53권을 전부 인쇄하려는 의도였는가 하는 것으로 李需의 ‘東國李相國文集序’에서 의하면,

… 嗣子監察御史涵收拾萬分之一 … 請爲文集 公可其請 分爲四十一卷 號曰 東國李相國集 … 辛丑八月日 … 李需序¹³⁾

11) 『高麗名賢集』(影印本)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院, 1973), 一, 10上.

12) 상계서, 568-571.

라고 하여 처음에는 41권만 완성되었으며, 또 서문을 쓴 날짜가 李奎報가 죽기 1개월 전의 일이므로, 이때는 이미 책을 찍기 시작하였을 때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우선 자료수집과정을 거쳐 내용을 완성한 41권만 찍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崔怡가 의원을 보내어 진찰케 할 때에는 이미 얼마 후에 세상을 뜰 것을 예상하고 그가 생존하는 동안 문집을 인쇄하여 보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책의 간행을 독려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급한 상황에서 많은 분량을 빨리 찍어내는 방법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금속활자인쇄였을 것으로 당시에는 이미 「詳定禮文」과 같은 많은 분량의 책을 활자로 찍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때이다. 이 활자로 찍은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일 실물이 나타난다면 이 책을 인쇄한 시기는 高宗 28년(1241)의 7월부터 9월사이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東國李相國集」의 「全集」을 활자로 먼저 인쇄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後集」과 비교하여 보면 版式 중 全集은 界線이 없고 10行 18字를 기본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後集은 界線이 혼입되어 있고 12行 18-19字로 배열이 다르다. 그밖에 글자의 서체나 글자간의 중첩 등 후집은 일반적인 목판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서 全集과는 간행의 형식이 달라져 급박한 시기에 당시의 형편대로 간행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5.2 「東國李相國集」 중 證道歌字의 번각본

5.2.1 「東國李相國集」의 체제와 내용

이 책은 李奎報가 생전에 저술하고 편집한 내용을 全集과 後集으로 간행한 것이며 서로 각각의 체제를 갖고 있다. 후집은 12권으로 전집의 누락부분을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문학적인 평가는 물론 무신정권과 몽고와의 전쟁,

13) 상계서, 1下.

불교의식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특히 全集 중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 ‘麴先生傳’ 등과 後集 중의 ‘新印詳定禮文跋尾’는 대장경과 금속 활자에 관련된 서지학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집의 대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李需의 序
- ② 아들 涵의 年譜序, 年譜
- ③ 全集 卷1-41 古詩와 散文
全集 1,201首, 後集 857首 합 2,058首
- ④ 아들 涵의 後集序
- ⑤ 後集 卷1-12, 전집에서 빠진 시문
- ⑥ 鄭芝가 지은 誄書, 李需의 墓誌銘

5.2.2 간행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41년 7월에 이규보의 병이 악화되자 최이가 의원을 보내고 그의 시문 전·후집 53권을 기술자를 시켜 빨리 간행하도록 독려하였다는 연보의 기록과 李需의 기록이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존의 판본에서는 全·後集의 書體와 版式이 다르고 특히 후집에서는 卷次에 따라서도 형식상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서둘러 간행이 진행된 책은 1241년 말경에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판본은 잘못되고 빠진 곳이 많아 1251년에 손자 李益培 등이 分司都監에서 大藏經의 판각을 마친 여가에 勅命을 받들어 校勘하여 문집을 再刊行하였다.

李相國集跋尾

嗣孫益培言 祖文順公 全集四十一卷 後集 / 十二卷 年譜一軸 行于世者尙矣
多有訛 / 舛脫漏之處 今者分司都監 雕海藏告 / 畢之暇 奉 / 勅鑄板 予幸守比
郡以家藏一本 讎校流 / 通耳
辛亥歲 高麗國 分司大藏都監 奉 / 勅雕造

使 / 副使 晋州牧 副使 兵馬幹轄 試尙書工部侍郎 全光宰 /
 錄事 將仕郎 軍器主簿 同正 井洪湜 /
 錄事 將仕郎 軍器主簿 同正 張世候 /
 校勘 河東郡 監務 管句學事 將仕郎 良醞令 李益培

이 발문의 내용에 의하여 初刊의 刊本을 이 때 重刊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되었던 現存本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몇몇 기관과 일부 개인 소장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형태적으로 볼 때 초기의 印出本은 傳本이 드물고 마모가 많으며 補刻板이 삽입된 것이 많다. 이 補刻板 역시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서 원형을 유지한 것과 界線을 보충하거나 書體가 전혀 다른 판이 혼입되어 있는 것도 많다.

또 이때의 간행이 翻刻인지 重刊인지 跋文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실물의 版本을 조사하면 活字本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면서도 일부 제한적으로 跋文에서 언급한대로 빠지거나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즉 활자본이라면 글자간의 間隔이나 行間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특정 부분에서 字行字數나 書體가 달라진 경우를 볼 수 있다.

5.2.3 分司大藏都監版 系統의 翻刻本

「東國李相國集」의 간행은 고려와 조선 전반을 걸쳐 목판본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또 간행된 목판본들 중 고려말 조선초기로 추정되는 刊本¹⁴⁾에서는 補刻되어 혼입된 판이 많고 그 보각의 시기와 층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판본은 分司大藏都監에서 李奎報의 손자인 李益培에 의하여 校勘되고 간행한 판본이다. 이 판본 중 일부는 선행연구자¹⁵⁾들

14) 「東國李相國集」의 판본에 대하여 2010년 11월 1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서지학회의 발표에서 지정토론자인 조형진교수님은 글자 대조를 위한 가장 좋은 선본은 한국은행 소장본이라 토론하였으나 실물을 확인하면 그 판본은 조선시대의 중간본으로 권말기록의 기록만 분사대장도감 일 뿐 서체 등은 본 연구의 비교대상이 아님을 밝혀둔다.

「韓國銀行 古書解題」(서울: 한국은행, 2001), 375-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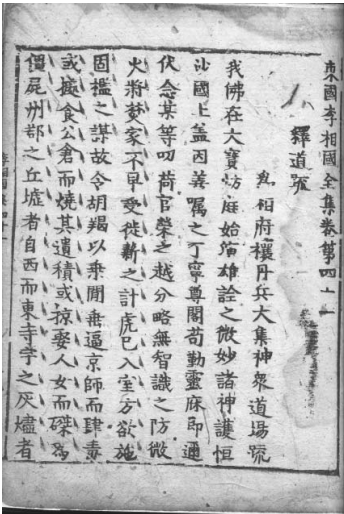
15) 千惠鳳,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권31-41」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 VII」(서울: 국립중

에 의하여 검토되었지만 아직 개인들의 소장자료 중에는 검토되지 않은 것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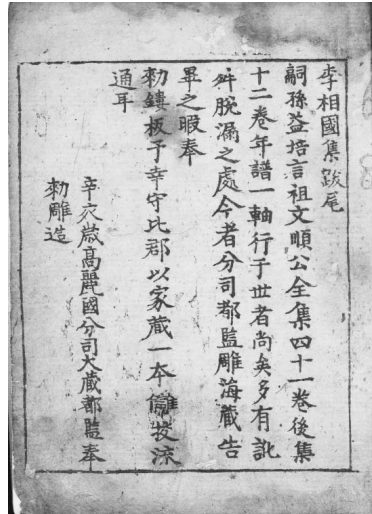
그러나 이 판본에 대하여 底本の 활자본 여부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병태교수님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었으며 더구나 이 연구에서 검토되는 ‘그 底本은 證道歌字로 찍었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① 全集 권18-22, 31-44(零本 16권 4책)
- ② 半匡 21.6×17.4cm, 無界, 10行 18字
- ③ 권41의 말미에 李益培 跋文과 刊行記錄



〈東國李相國集 卷41〉卷首題



〈東國李相國集 卷41〉李益培 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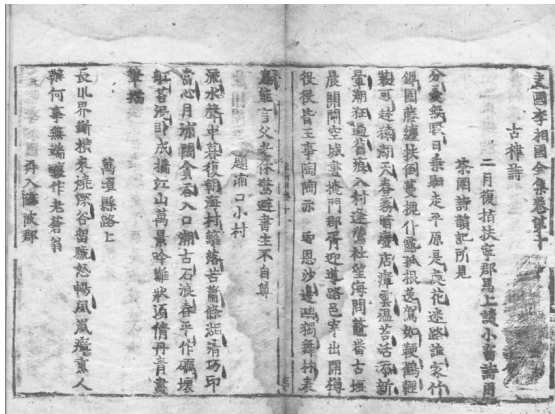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 숙명여자대학교 소장본

① 全集 권9-13, 20-24, 34-37(零本 3책)

② 補刻板 부분 혼입, 권10 末의 李益培 跋文과 刊行記錄

비교: 嗣孫益培言 祖文順公 全集 []+[]卷 後集 / []二卷 年譜一軸 行
于世者尙矣에서 []속의 일부 글자가 磨滅되었음



〈東國李相國集 卷10〉 卷首題



〈東國李相國集 卷10〉 跋尾

〈그림 4〉 숙명여대 소장본

(3) 연세대학교 소장본

- ① 後集 12권 2책
- ② 有無界 혼입, 12行 18字



〈東國李相國集後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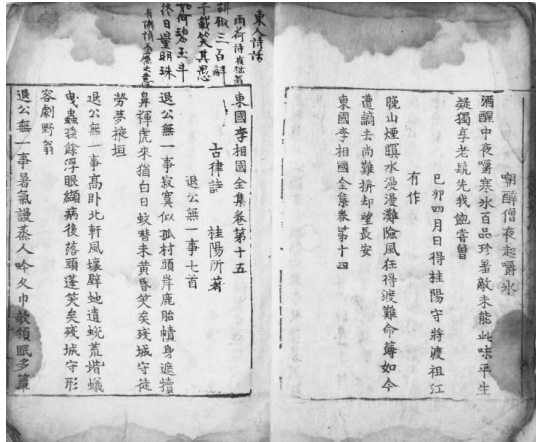
<그림 5> 연세대학교 소장본

(4)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

- ① 全集 권19(零本 1책)
- ② 後刷本, 刻手名 ‘玄回’

(5) 개인소장본

- ① 全集 권14-17(零本 1책), 刻手名 ‘朴介’, ‘惠[]’, ‘金[]’
- ② 全集 권30-34(零本 1책)
- ③ 全集 권16-18(零本 1책) 補刻板 혼입(界線, 黑口)
- ④ 全集 권34-36(零本 1책) 補刻板 혼입(界線, 黑口)



〈東國李相國集 卷15〉 卷首題

<그림 6> 개인소장본

5.2.4 分司大藏都監版 系統의 翻刻本과 「證道歌」와의 比較

이 판본의 특징을 「證道歌」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판식의 형태와 개별 글자의 사용 등에 대하여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글자

- ① 글자의 크기가 고르지 않다.
- ② 「證道歌」의 글자와 같은 유형을 보인다.
- ③ 「證道歌」의 글자와 크기가 같다.
- ④ ‘風’자의 양쪽 올림, ‘彳’ 부수가 들어간 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 ⑤ ‘厶’자, ‘此’의 가운데 획, ‘於’의 3종류 분포, ‘首’의 1, 2획 방향
- ⑥ ‘善’, ‘着’자 등에서 1, 2획의 2종류 방향, ‘指’의 ‘匕’ 2종류, ‘極’의 마지막 획 길이
- ⑦ 略字, 異體字의 쓰임이 같다.

⑧ 「證道歌」에 없는 小字가 사용되었다.

(2) 組版

① 界線이 없다.

② 같은 줄 내에서 글자의 겹침이 없다.

③ 같은 줄 내에서 글자의 좌우 쏠림과 드나들이 있다.

④ 일부 板面에서 上部의 上下 글자 간격이 下部보다 치밀하다.

아래로 갈수록 글자의 상하 간격이 넓어지는 판이 자주 나타난다.

⑤ 좌우의 列이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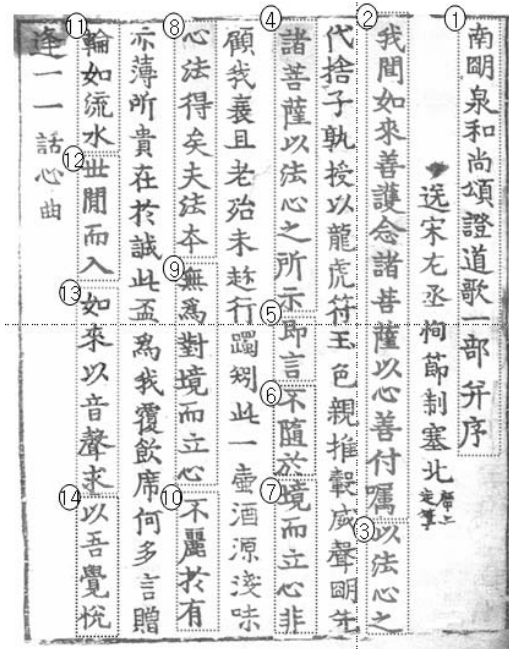
⑥ 全集 권15의 제14장 뒷면 ‘與寮友諸君遊四月月寺’ 등 여러 곳에서 字間의 간격과 글자의 기울어진 현상 등을 볼 수 있다.

(3) 版式

版心題: ‘李相國集’

전체적으로는 「證道歌」와 「東國李相國集」의 내용 분량이 각각 다르고 주제 분야 즉 본문의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東國李相國集」에서 사용된 글자의 종류, 쓰임, 異體字, 동일자의 다른 크기와 書體 등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跋文에 의하면 원본에 오류가 많다고 하였으나 실제의 판본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그 頻度가 많지 않고 비교적 底本의 서체나 판의 체제, 글자의 배열 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證道歌」와 「東國李相國集」의 서체를 비교하기 위해 각 책의 본문 중 일부를 임의로 선별하여 하나의 본문으로 재구성하였다. 두 책 모두 같은 소위 ‘증도가자’의 번각본이라는 조건 하에 「證道歌」 제1장에서 제2장까지 나오는 일부의 글자와 문장을 무작위로 뽑아 「東國李相國集」 권17의 제24장 판면 안에 혼합시켰다. 그 결과 <그림 7>과 같이 「東國李相國集」와 「證道歌」의 서체는 구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그림 7> 「東國李相國集」와 「證道歌」의 혼합된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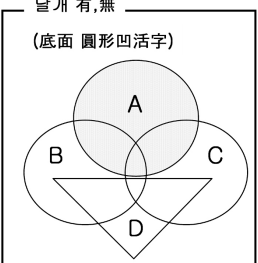
<그림 7>의 혼합된 본문은 「東國李相國集」 권17의 제24장을 바탕으로 하여 「證道歌」 제1-2장의 일부 글자 및 문장을 배치시킨 것으로 「證道歌」 제1-2장에서 가져온 개별 글자는 다음과 같다.

「證道歌」 제1-2장中	① 1A 1행	⑥ 1A 6행 3-5자	⑩ 1B 1행 7-10자
	② 1A 2행	⑦ 1A 7행 11-15자	⑪ 1B 8행 1-4자
	③ 1A 3행 4-7자	⑧ 1A 7행 1-7자	⑫ 1B 4행 1-6자
	④ 1A 3행 1-9자	⑨ 1A 7행 8-14자	⑬ 2A 6행 12-15자
	⑤ 1A 4행 9-10자	⑩ 1A 6행 7-10자	

그 밖에 본 연구에서는 「東國李相國集」卷16~18의 본문 글자를 분류하며 「證道歌」의 글자와 대조하였다(부록 예시 참조).

즉 이러한 시도는 글자의 서체, 판식 조판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시도로 만약 두 판본의 각 글자가 미세한 차이라도 있으면 행을 이루거나 전체적인 조판에 있어서는 글자 수만큼 누적되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행의 간격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조방법에 의하여 개별글자의 같음은 물론 개별글자의 조합 역시 같은 활자로 책을 찍어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6. 13世紀 前期 高麗活字에 대한 논의

1. 官鑄			2. 寺鑄
13c	13-14c	14c 末	14c 末
<p>날개 有, 無 (底面 圓形凹活字)</p>  <p>A- 『證道歌』 B- 『詳定禮文』 C- 『東國李相國集』 D- 발견활자</p>	<p><未使用活字> 4脚活字 (大, 中)</p> <p>발견활자 (大, 中)</p>	<p><書籍院活字></p>	<p><興德寺字></p> <p>『直指』</p>

- (CND)-B ≙ ‘尫’, ‘材’, ‘醯’
- D-(BUC) ≙ ‘邴’

이상의 비교와 검토에서 1232년 이전에 개성에서 금속활자로 찍은 『證道歌』의 1239년 번각본과 1241년에 찍은 『東國李相國集』 全集의 번각본인 분사대장도감 간행본의 서체나 형태 등의 서지적 검토에서 같은 현상을 보인다면 『東國李相國集』은 강화도 또는 개성의 어디에서 간행되었을까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역사적 사실과 논리에서 볼 때 「東國李相國集」은 강화도에서 찍어내었을 가능성이 높다. 後集의 권11에 수록된 ‘新印詳定禮文跋尾’에서 몽고군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할 때 藝館의 것은 가져오지 못하였고, 崔怡의 家藏本만 남게 됨에 이를 다행으로 여기다가 마침내 鑄字로 28부를 찍어 여러 관사에 나누어 간직하게 하였다는 내용에서 단지 책을 미처 가져오지 못했다고 언급했을 뿐 새롭게 활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다.

「詳定禮文」이라는 책은 毅宗朝에 王命에 따라 편찬된 국가 典禮에 관한 규정집으로 儒敎의 典禮를 唐宋 등의 古制를 참작하여 정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요는 국가의 주요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필요한 책인 까닭에 출판의 수량이 많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분량 면에서는 50권이 넘는 내용이었으므로 목판보다는 활자로 찍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을 것이다.

또 이를 쉽게 찍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활자 등 책을 출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證道歌」의 경우에도 1239년에 번각할 때 禪門의 중요한 책이지만 천도할 때 가져오지 못하여 널리 배포하고 오래 전하고자 간행한다는 권말의 내용에서 江都로 활자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내용은 없다. 「증도가」의 간행에 소요된 총 板의 수는 44장이며 이를 양면의 목판에 판각한다면 22장 밖에 되지 않는 규모도 작고 간단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인출의 수량을 많이 하고자 하였다면 초기 활자인쇄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인출이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연히 목판으로 새기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과 조건은 계미자, 경자자 등 조선초기의 경우를 비교해 보아도 쉽게 짐작이 간다. 「詳定禮文」의 예에서도 수요의 적절성과 조판·인쇄기술의 수준에 미루어 활자인쇄가 적용되었듯이 「證道歌」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板刻 작업과 오래도록 보관하면서 많이 찍을 수 있는 것은 목판이므로 이를 채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존하는 「證道歌」의 같은 판본이 4분 이상 존재하는 것을 보아서도 그 목적이 多量 印出, 配布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詳定禮文」과 「東國李相國集」의 원간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도 少量 印刷

와 급한 需要에 부응한 인쇄방식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東國李相國集』은 全集을 찍어내는 방법에서 급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활자인쇄로 진행되었으나 이규보가 중간에 세상을 뜨게 됨으로 後集과 年譜는 목판으로 진행되어 版式도 다르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추정과는 달리 일의 시급성으로 全集을 활자로 찍어내면서 後集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후집에 이규보의 誄書가 포함되어 있고 李需가지는 墓誌銘이 수록된 점으로 미루어 그가 세상을 뜬 후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年譜에 수록된 내용 중 최이가 간행을 독려하는 글에서,

… 乃取 公平生所著 前後文集 凡五十三卷 募工雕印 其督役甚急 …

여기에 사용된 ‘雕印’은 반드시 목판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기록이 문집의 완성시점에서 기록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後集과 年譜 등의 체제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東國李相國集』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면 구태여 간행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간행할 필요도 없이 印出하면 되었을 것이나 앞서의 版本이 活字로 조판된 후 해체된 까닭에 부득이 다시 새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앞의 판본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도 補刻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나 활자의 組版本이기 때문에 새로 판각해야만 했고 그나마도 내용의 교체부분이 많지 않았고 또 시간적인 절약,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수정후 飜刻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1232년 이후 1251년까지 앞뒤의 사정을 헤아려 본다면 1232년 개성에서 강화도로 천도할 때 『證道歌』를 찍었던 금속활자를 함께 옮겨왔지만 『證道歌』의 경우는 간행규모가 작고 널리, 오래 전하고자 목판으로 찍어내는 것을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내용이 많았던 『詳定禮文』은 옮겨온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기술과 수요가 알맞은 접점을 이루는 상황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찍어 여러 부서에 배포하여 典禮에 참고하게 하였고 『東國李相國集』의 경우는 신속하게

찍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叢集을 같은 활자로 組版하고 찍어내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3책은 모두 같은 활자로 찍었으며, 그 후 몽고의 압력에 굴복하여 太子의 入朝와 함께 고종 46년(1259) 다시 개성으로의 還都가 논의되어 원종 11년(1270)에 고려 정부가 환도할 때 활자도 같이 옮겼지만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궁궐터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견된 고려활자가 「證道歌」를 찍었던 활자이며, 그 형태에 있어서도 활자의 좌우측에 날개와 같이 작은 돌출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두 가지의 형태로 이는 개성에서 만든 초기의 형태와 강화도에서 분량이 많은 두 책을 찍을 때 不足字를 補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개성에서 遷都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還都 후에 보충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의 활자 발견과 「東國李相國集」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證道歌」가 이 활자로 찍은 최초의 印本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證道歌」에 사용된 같은 글자의 활자를 유형별로 볼 때 異體字가 자주 나타나고 글자의 크기가 같지 않는 점 등에서 「證道歌」 역시 최초의 印本이 아니며 다른 書體와 크기가 다른 활자가 혼입되어 있으므로 처음 鑄成된 활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같은 현상이 「直指」의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이러한 판단은 이번 에 발견된 활자 중 같은 글자가 복수 활자로 나타나는 ‘心, 法, 切, 佛, 所, 大, 不, 善’ 등의 활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로 추론을 미룰 수밖에 없다.

7. 중국학자 潘吉星의 한국 금속활자 논의에 대한 검토

7.1 주요 내용

이 내용은 1997년 9-10월에 한국에서 개최한 “동서양인쇄사국제토론회”(International Symposium on Printing History in the East and West)에서 한국학자가 중국과 서양 세계의 금속활자가 한국으로부터 전래되었던 것이라고

제기한 것에 대한 반론으로 반길성이 『中國金屬活字印刷技術史(2001)』¹⁶⁾ 중의 ‘한국이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설」을 평한다’는 내용에서 高麗 金屬活字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覆’ 활자에 대하여 발굴된 기록이 없고, 금속 성분이 고려 숙종 7년(1102)에 주조한 “海東通寶”라는 동전과 같이 구리 50.9%, 주석이 28.5%, 납이 10.2%, 철이 2.2% 및 아연 0.7%로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1102-1232년 사이에 주조된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성분이 비슷한 청동 유물이라도 반드시 동일시기의 산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둘째, ‘覆’자의 추정년대 편차가 너무 크고, 만약 실제 사용된 활자라면 ① 정면 위의 글자는 글자의 좌우가 뒤집어지고 표면은 평평할 것, ② 글자의 정면이 정방형 혹은 장방형일 것, ③ 각 테두리가 90도 직각으로 나타날 것, ④ 局部 혹은 전체 글자가 입방체 혹은 긴 입방체일 것이라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覆’자는 외형이 가지런하지 않고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다르며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아니며 각 테두리는 90도 직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자면은 삐뚤고 가지런하지 않고 위가 좁고 아래는 넓으며 배면은 큰 타원형의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어서 활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형체 특징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인쇄용의 활자인지 의심스럽다.

셋째, 1958년 北韓의 開城市 滿月臺 神鳳門에서 발견되어 평양시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顛”자도 금속성분이 고려의 동전과 비교하여 12-13세기의 동활자라고 주장하지만 형태가 더 가지런하지 못하며 정방형이나 장방형도 아니며 4개 테두리의 經測量은 110도-130도인데 아래에 110도씩이나 움푹 파 들어간 공간의 테두리가 있어 동활자의 기본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두 개의 유물은 인쇄용 활자가 아니며 연대 또한 확정하기가 어렵고 고려조 중기(1088-1240)에 동활자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넷째, 활자 주조와 인쇄 지식의 습득과 관련된 기록중 한국학자는 고려에서 금속

16) 潘吉星, 『中國金屬活字印刷技術史』(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2001), 38-126.

활자 인쇄를 발전시킬 때 宋의 沈括(1031-1096) 『夢溪筆談』이 畢昇의 기록에 의하여 활자 인쇄 지식을 파악했다고 전제하였으나 『夢溪筆談』은 1166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출판되었고 고려의 동전 주조는 1102년이므로 당시 활자 인쇄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었으므로 상한 시기를 1102년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다섯째, 한국학자는 李奎報(1168-1241)가 崔怡(1175-1249)를 대신하여 기초한 ‘新印詳定禮文跋’을 인용하여 고려에서 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쇄한 가장 빠른 문헌기록으로 삼는다. 이규보가 발문을 기초할 때 崔怡를 “晉陽公”이라 했고 그리고 『高麗史』 125권 ‘崔怡傳’에는 그가 1234년에 처음으로 晉陽侯에 책봉되어 1242년에 이르러 비로소 晉陽公이라는 작위에 들어갔는데, 이규보는 이 이전인 1241년에 죽었기에 晉陽公을 대신하여 발문을 썼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자료들은 서로 모순된다.

한국학자는 ‘詳定禮文跋’이 이규보가 晉陽公 崔怡를 대신하여 쓴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만약에 이규보가 썼다면 최이를 진양공이라고 쓸 수 없는 시기인 것이다. 즉 1232-1241년 사이에 최이는 진양공이 아니었으며 당시에 高宗이 강화도로 피신한 것은 전쟁중 세상이 어지러운 시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인데 단지 28부의 『詳定禮文』을 찍어내기 위해서 섬에서 대량의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쇄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여섯째, 『證道歌』의 崔怡 跋文에 의거하여 한국학자들은 1232년 이전에 금속활자 기술을 가졌다고 여기고 있으나 현존의 “주자본”은 전해지지 않고 원래 있었던 발문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다. 一山文庫 소장본 발문의 글자배열과 크기가 서로 달라서 “주자본”을 모방하여 새긴 것을 후세에 다시 모방하여 새겼다는 것은 추측일 뿐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또 己亥年(1239)에 崔怡는 晉陽侯이었으므로 晉陽公이라 칭할 수 없다.

일곱째, 1234-1238년 사이에 이미 “鑄字”로 『詳定禮文』을 인쇄했다면 1239년에 그 당시 주조한 활자로 『證道歌』를 찍지 않고, 기술자를 모아 鑄字本을 번각하여 목판을 새기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이 때 『詳定禮文』이 銅活字版이 아니라면 『證道歌』의 鑄字本은 宋에서 온 것 일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7가지 관점에서 고려활자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7.2 검토

이러한 중국학자의 주장에 대하여 일부 한국학자의 반론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특히 고려 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일 수도 있고 또 그가 지적한 몇 가지 문제 중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나 견해 가운데 특정의 견해를 일반화한 부분이 많다. 특히 동전의 구조와 연결된 입장과 성분분석에 대한 논의가 그러하며 史料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 무신집권기 당시의 특수한 사정이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여기서는 이번에 발표된 활자를 바탕으로 하고 또 『東國李相國集』의 간행과 활자본 여부에 대한 전후의 검토, 『古今詳定禮文』과의 출판관련 사항을 기초로 몇 가지 참고 사항을 제시하면서 중국학자들의 주장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 (1) 중국학자가 언급한 실물활자의 형태와 실제 사용여부는 새로 발견된 120여자의 활자의 형태가 방형, 측면의 수직, 먹의 잔류 등에서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다.
- (2) 금속성분에 의한 사용시기 추정은 이번 활자의 경우 파괴,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여 진위 여부 판정의 데이터로 만 활용할 뿐 구조시기의 판정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금속의 성분은 비파괴일 경우는 ‘복’자와 유사하지만 파괴분석의 경우 구리가 약 80%, 주석이 약 10%, 기타 미량의 다른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3) 활자의 마모, 자연 조건으로 인한 풍화, 부식, 산화에 대한 전존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 ‘복’자와 유사하게 글자와 활자의 가장자리 주변이 마모되어 둥근 느낌을 보이는 활자도 있었다.
- (4) 새로운 형태의 활자가 나타남으로 구조의 방법, 조판 방법의 발달, 조선초기 계미자 서체와의 검토 등 향후의 연구를 기다려야 한다. 즉 두 가지 유형의 證道歌字로부터 네자리형의 활자로 발전되는 형태적인 발전, 서체

의 변화, 주조기술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한 과제이다.

- (5) 「證道歌」의 木板 飜刻, 「詳定禮文」, 「東國李相國集」의 활자 인쇄는 그때마다의 필요성, 긴급성 등 목적에 맞게 적용된 것이다.
- (6) 「證道歌」에 사용된 활자의 서체중 동일 글자의 異體字가 있거나 크기가 다른 점으로 보아 이미 앞서 다른 책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 고려 금속활자의 始原을 13세기 초, 구체적으로는 1232년 이전으로 추정하였으나 실물활자와 「證道歌」 등의 분석에 의하여 그 시기를 앞당겨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 (7) 崔怡가 晋陽候를 받는 것은 高宗 8년(1221)에 候로 봉해졌으나 사양하였고 이후 高宗 21년(1234)에 遷都의 공으로 다시 받게 되었다. 晋陽公이란 작위는 高宗 29년(1242)에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후에 사용되는 것이나 당시 최이의 권력은 왕과 정부를 마음대로 흔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던 까닭에 그대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거나 다른 예에서 보듯이 爵位가 아닌 단순히 높임의 차원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닐지 알 수 없다.

이 시기에 간행된 책의 序文이나 跋文에 보이는 기록은 다음과 같아서 ‘公’으로 봉해지기 여러 해 전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235년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晋陽候’
- 1236년 「妙法蓮華經」, ‘晋陽候’
- 1237년 「金剛般若波羅密經(대자본)」, ‘晋陽候 崔瑀’
- 1239년 「南明泉和尚頌證道歌」, ‘晋陽公 崔怡’
- 1240년 「妙法蓮華經」, ‘晋陽公 崔怡’
- 1241년 以前 「詳定禮文」의 跋, ‘代晋陽公行’

이러한 논의와 실물 활자의 발견 등에 의하여 일부 중국학자들이 제기하는 고려 금속활자의 始原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관련 학계의 흐름으로 볼 때 학술적인 의미 이상의 어떤 영향력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논의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 맺음말

이상으로 高麗 版本 중 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된 『東國李相國集』의 판본에 대해 기본적인 형태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활자본을 교정, 번각한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였으며 證道歌字의 이동 배경 및 글씨 비교를 통해 『東國李相國集』 底本の 활자가 證道歌를 찍었던 활자와 같음을 밝혔다. 또한 『東國李相國集』 全集의 활자 글씨가 證道歌字와 같다면 『古今詳定禮文』의 활자는 새로운 활자가 아니라 『證道歌』와 『李相國集』을 찍었던 같은 활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東國李相國集』의 간행이 飜刻인지 重刊인지 跋文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실물의 版本을 조사하면 活字本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면서 일부 빠지거나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또 字行 字數나 書體가 특정부분만 달라진 경우를 볼 수 있다.
- 2) 『東國李相國集』의 全集과 後集을 비교해 보면 全集은 界線이 없고 10行 18字를 기본으로 하지만 後集은 界線이 혼입되어 있고 12行 18-19字로 배열되어 있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全集을 활자로 먼저 인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東國李相國集』과 『證道歌』의 글자는 유형과 크기가 같고 특징적인 획부분이 흡사하며 略字, 異體字의 쓰임도 같다. 그러나 『東國李相國集』에는 저본의 본문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까닭에 『證道歌』에 없는 小字도 사용되었다.
- 4) 『東國李相國集』의 組版은 界線이 없고 일부 板面에서 上部의 上下 글자 간격이 下部보다 치밀하며 아래로 갈수록 글자의 상하 간격이 넓어지는 판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좌우의 列이 맞지 않으며 全集 권15의 제14장 뒷면 ‘與寮友諸君遊罔月月寺’ 등 여러 곳에서 字間의 간격과 글자의 기울어진 현상 등을 볼 수 있다.
- 5) 고려가 강화도로 遷都하기 전 어느 시기에 『證道歌』가 활자로 찍히고 그

飜刻本은 江都에서 간행되었으며, 江都에서는 천도시 함께 옮긴 활자로 「古今詳定禮文」를 찍어 주요기관에 비치시켰다. 또 「東國李相國集」도 같은 활자를 사용하여 찍었다가 還都할 때 그때 사용한 활자들을 다시 開城으로 옮겨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3책은 모두 10여년 내에 같은 활자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부록〉 『證道歌』와 『東國李相國集』 글자 비교 표 예시

증도가	동국이상국집	증도가	동국이상국집	증도가	동국이상국집
					
15b-02-14	18B-03-08	20a-06-12	18B-07-13	21a-03-12	21B-09-16
					
5b-05-14	8A-01-09	11b-05-13	8B-01-08	18a-02-15	10A-04-06
					
19a-04-11	7B-02-15	26a-07-14	13A-07-05	31a-04-13	14B-09-07
					
6a-04-11	5B-03-16	8a-05-03	8B-06-07	10b-02-11	9A-06-15
					
10b-01-10	4B-04-01	13a-06-14	5B-05-09	15b-07-08	5B-09-14
					
2b-06-01	4A-08-16	13a-03-06	4A-10-13	18b-05-11	4B-06-05

